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담배를 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부터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피우지 말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의 교실에서만 피우지 않도록 하던 것이, 지금은 복도까지도 피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등도 점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게 환영받고 있다. 그들은 물론 피해자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매우 괴로워 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처럼,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역시 담배를 피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갑작스런 이런 조치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담배를 피울 장소도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어디에 가도 모두가 그들에게 ‘안돼’ 라고 만 말한다.

나의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매우 담배를 좋아한다. 언제나 담배를 피운다.

물론, 나와 함께 있을 때도 그는 담배를 피운다. 나는 담배의 연기가 매우 싫지만 그 때문에 참는다.

이미 세계적으로 간접 흡연이 매우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간접으로 담배의 연기를 마시면 폐암에 걸린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들은 건강히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간접으로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리기는 싫다.

그러나 나의 남자친구의 입장은 어렵다. 그는 이미 중독 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자가 군대에 가면 정부에서 담배를 주는 형편이다.

그래서 남자는 완전히 중독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더욱 심각하다.